

아세안 및 아세안 TEL 동향

정 유 미*

1. 서론

2015년 12월 아세안공동체(AC)가 출범하면서 통합된 아세안을 이루려는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에 발맞추어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에서는 새로운 ICT 마스터플랜인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AIM 2020)’을 발표하고 아세안의 통합을 위해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통합된 아세안 속에서 ICT의 발전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한국에 근접하여 한국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며, 국내 기업들에게는 주요 해외진출지역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아래 글은 ASEAN의 급변하는 정세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과의 관계 및 한국의 對 아세안 협력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2. 아세안 개관

아세안의 인구는 6억 3천만명 정도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경제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205, yumi@kisdi.re.kr

모 또한 세계 7위 수준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적 규모와 성장 잠재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표 1> 아세안 주요 지표(2014년 기준)

구분	내용
인구	약 6억 3천만명(세계 3위)
면적	447만 km ²
경제규모	GDP 2조 6천억 달러(전세계 총 GDP의 3.2%, 세계 7위)
교역량	2조 5천 3백억 달러(수출: 1조 2천 9백억 달러/ 수입: 1조 2천 4백억 달러)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총 10개국)
대화상대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총 9개국)
사무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사무총장: Le Luong Minh)

출처: 아세안 웹사이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독립한 국가들의 정치적 혼란, 베트남전쟁이 본격화되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등의 역내 공산주의의 위협, 국가간 분쟁 등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1967년 동남아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이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창립선언(방콕선언)’을 통해 결성되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경제 성장과 사회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보다는 경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특히 1990년대 말에 동남아는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중국 상품들이 국제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도 이쯤이었다.

아세안 창설 이후, 동남아시아 10개의 국가들이 지역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세안 30주년 기념일인 1997년, 아세안 리더들이 아세안 비전

2020을 채택하면서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이후 12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창설하기로 하였던 아세안공동체를 2015년 창설로 앞당기고 마침내 2015년 말,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출범을 선포하고,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발표하였다. 비전 2025는 2025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공

〈표 2〉 아세안정상회의의 아세안공동체 출범 주요 성과

아세안정상회의	주요성과
방콕협력 (1967. 8)	동남아 5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을 주도로 아세안 출범 ※ 브루나이(1984), 베트남(1995), 미얀마·라오스(1997), 캄보디아(1999) 가입
아세안비전 2020 선언 (1997. 12, 제2차 비공식정상회의)	아세안공동체 창설을 위한 비전 제시
하노이행동계획 채택 (1998. 12, 제6차 정상회의)	아세안비전 2020의 1차계획(1999년~2004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10개 분야별 협력방안 제시
발리협력선언 II 채택 (2003. 11, 제9차 정상회의)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PSC),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CC) 등 아세안비전 2020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제시
비엔티안행동계획 수립 (2004. 11, 제10차 정상회의)	아세안비전 2020의 2차 계획(2004~2010)이자 하노이행동계획의 후속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해 농업기반제품, 자동차, 고무제품 등 11개 우선통합분야 선정
아세안공동체 가속화 선언 (2007. 1, 제 12차 정상회의)	아세안공동체의 출범 시기를 2020년에서 2015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
AEC 청사진 선언 채택 (2007. 11, 제 13차 정상회의)	AEC출범을 위한 4대 목표로 ①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②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③ 균형경제발전, ④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등을 제시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단위로 세부 이행계획 발표
아세안비전 2025 선언 (2015. 11, 제 27차 정상회의)	아세안공동체의 2015년 12월 31일 출범 선언 및 아세안비전 2025 발표

출처: 한국무역협회(2015. 12)

동체, 사회·문화 공동체에서의 아세안 통합을 견고히 하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은 역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관심이 높아 경제공동체(AEC)를 정치안보(APSC), 사회문화(ASCC) 공동체 부문에 앞서 진행하고 있다. AEC는 궁극적으로 아세안 10개국 내에서는 유럽연합(EU)처럼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및 고급인력의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AEC 경제통합은 역내 자유무역협정 단계를 넘어 GCC, MERCOSUR와 같은 관세 동맹으로 나아가는 중간단계로 평가된다.¹⁾ 이미 아세안 회원국 중 나중예 가입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제외한 5개국은 이미 2010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낮추었으며 ‘금융서비스 분야 상호개방을 통한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한 역내 서비스에 관한 기본협정(AFAS)’을 체결하고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림 1] 아세안 공동체(AC) 구성



출처: 외교부(2015)

1) 한국무역협회(2015. 12)

이처럼 의욕적으로 AEC를 설립하고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통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세안은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고 있으나 국가 간 여전히 자유무역 예외품목이 있고, 단일시장 구축도 아세안 기업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회원국 사이에 소득과 삶의 질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공동체의 기본인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각 회원국 간의 다른 언어와 문화도 경제통합에 장애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개의 회원국 간의 통합을 이루어낸 유럽연합(EU)의 선례를 보았을 때 아세안공동체(AC) 역시 더 발전된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은 풍부한 1차 자원과 매년 확산되는 중산층의 강점을 가졌다. 또 AEC의 실현은 인구 13억의 중국, 12억의 인도 사이에 위치하여 중국-동남아-인도를 연결하는 초대형 경제권이 탄생한다는 의미가 있어 그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게도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로 2013년 한-아세안 교역액은 1,350억에 달하며 지리적 접근성이 높고, 사회문화적 교류도 활발하다. 따라서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각 분야별 통합노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분야별 및 통합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아세안 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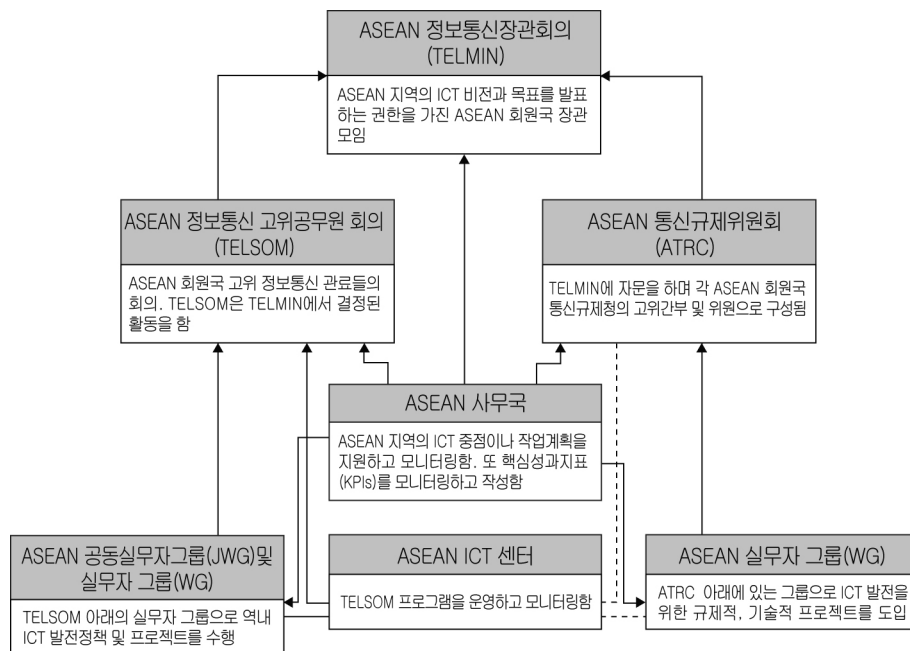
ASEAN은 2000년 5월부터 정보통신 고위급 관료회의(TELSOM)와 2001년 7월부터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매년 TELSOM과 TELMIN 개최에 앞서 실무자급(JWG)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세안 TEL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아세안지역의 정보통신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회원국 10개국 이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 인도, ITU 등이 대화상대국(Dialog Partners, DPs)으로 참석한다. 2006년부터는 ASEAN+Korea TELSOM과 TELMIN을 ASEAN TELMIN과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한국이 아세안 대화상대국으로서의 협력 10주년을 맞았다. 대화상대국과의 회의는 아세안 + 대화상대국

의 양자회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1)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15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15(AIM2015)는 2011년 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 11차 아세안 정보통신 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다. AIM 2015는 ① 아세안 회원국의 성장엔진으로서의 ICT, ② 글로벌 ICT 허브로서 아세안, ③ 아세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④ 아세안 통합에 기여를 주요 성과로 한다.

[그림 2]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관리체계



출처: ASEAN(2015)

AIM 2015는 6개의 핵심전략을 설정하였다. 이는 경제적 변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people empowerment and engagement), 혁신의 세 가지 전략적 축과 인프라

및 인적자본의 개발, 정보격차 해소의 세 가지 전략기반으로 구성된다. 각 전략적 요지별로 계획 및 행동 방침을 정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수행 및 완료 여부에 따라 AIM 2015 달성도를 체크하였다.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15 완료보고서(ASEAN ICT Masterplan 2015 Completion Report)’에 따르면 AIM 2015를 위해 대략 220만불 규모의 87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예산의 80.3%가 아세안 ICT 기금(AICTF)에서, 10.3%가 개별국가에서, 9.4%가 대화상대국으로부터 조성되었다. AIM 2015는 각 계획 및 행동방침(Action Point)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적어도 하나는 완료하였다는 측면에서 100% 달성하였음을 보고하고, 6개의 전략적 요지 중 예산 측면에서는 인프라 개발에 25%로 가장 많이, 인적자본 개발에 가장 적은 10%를 소요하였고, 프로젝트 수의 측면에서도 인프라 개발에 25%로 가장 많이, 인적자본에 8%로 가장 적은 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은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에서는 향후 각 전략적 요지별로 더욱 균형 있는 예산 및 지원인력 분산을 추진하겠다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IM 2015의 세부 프로젝트 수행의 측면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주요 성과(아세안 성장엔진으로서 ICT, 글로벌 ICT 허브로서의 ASEAN,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 및 아세안 통합의 기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세안 사무국 및 아세안 국가들 역시 목표를 현실을 반영하되 의욕적으로 높이 잡고, 이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더욱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AIM 2020)은 제 15차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에서 발표되었다. AIM 2020은 디지털 기반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면서 변화하고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된 아세안으로서의 완전히 디지털화된 경제를 비전으로 한다. AIM 2015가 산업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다면 AIM 2020은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닌 것이다. 핵심전략 역시 AIM 2020

에서는 이전의 6개에서 8개로 확대되었다.

〈표 3〉 AIM2015와 AIM2020 핵심전략

	AIM 2015	AIM 2020
핵심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경제전환(Economic Transformation) 2. ICT 역량배양(People Empowerment and Engagement) 3. 혁신(Innovation) 4. 인프라 발전(Infrastructure Development) 5. 인적자본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 6. 정보격차해소(Bridging the Digital Divid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발전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2. ICT 역량배양(People Integration and Empowerment through ICT) 3. 혁신(Innovation) 4. 인프라발전(Infrastructure Development) 5. 인적자본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 6. 단일시장 ASEAN에서의 ICT(ICT in the ASEAN Single Market) 7.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New Media and Content) 8. 정보보안 및 보장(Information Security and Assurance)

AIM 2020에서는 AIM 2015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되 정보격차해소를 제외하고 단일시장을 위한 ICT, 새로운 미디어 및 콘텐츠, 정보보안 및 보장을 새로운 핵심전략으로 추가하였다. 2015년 12월 아세안공동체가 출범하고, 그 일환으로 경제공동체(AEC)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함에 따라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을 위한 경제적 통합과정에서의 ICT 활용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는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정보보안 및 보장의 경우 AIM 2015에서 인프라 발전 아래 행동 방침으로 추진되었으나 디지털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핵심전략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각 핵심전략별로 1~2개의 계획(Initiative)을 정하고 각 계획별로 1~3개의 행동 방침을 규정하였다. 각 행동방침 별로 세부적인 타겟 및 프로젝트를 명시하여 AIM 2015에 비해 더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AIM 2020의 달성

도 측정 또한 프로그램이나 타겟의 수행여부에 따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한-아세안 ICT 분야 정부 간 협력

ICT 분야에서의 한국과 아세안 간 정부간 협력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양자 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 사무국을 통해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차별화 된다.

중국의 경우 네트워크 융합, 모바일 인터넷,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 등의 분야에서 초청연수 등의 형식으로 최근 협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세안-일본 ICT 기금을 구성하여 아세안과의 지속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2014년 12월 기준 50만불에 이른다. 일본은 최근 정보보안 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아세안 사무국과 함께 워크숍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2015년 ASEAN + Japan TELMIN에서는 아세안-일본 사이버보안 협력 허브 설립을 일본이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2015년에는 새로이 미국이 아세안 TELSOM의 대화상대국으로 참가하고, 2016년부터는 TELMIN에도 대화상대국으로 참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과 차별화하여 미국정부가 주도적으로 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으로 아세안-미국 ICT 협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아세안 공동체로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개별협력 보다는 아세안 사무국을 통한 협력방안이 유력하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이처럼 ICT 분야에서의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간의 협력은 대부분 아세안 사무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세안 사무국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은 그 효율성 측면에서 개별국가와의 양자협력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 매년 아세안 프로젝트를 아세안이 TELSOM과 JWG에서 대화상대국에게 제안하기는 하지만, 이는 사무국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형태이기 보다는 아세안 회원국 중 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담당하는 인력을 지정하고 협력을 희망하는 대화상대국을 연결해주는 기초적인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형식의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협력의 형태가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아세안이 공동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사무국을 통한 협력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 아세안 사무국의 입장에서도 사무국을 활용한 아세안과 대화상대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수요가 매우 큰 상황이다. 아세안 사무국이 제안하는 ICT 분야 프로젝트는 단기 워크숍 개최에서부터 장기 리서치 프로젝트까지 그 범위가 넓다. 당장 일본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미국처럼 민간과 함께 진출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인력과 재정적 측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워크숍에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를 단기 및 중장기 파견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시작하여 아세안과의 협력을 시작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또, 일본이 정보보호 분야에 집중된 협력을 추진하듯이 한 분야에 집중된 협력 형태는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역내 해당분야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덧붙여, 정보통신 담당부처,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적으로 국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ICT 분야의 對 아세안 협력 프로젝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간의 연계, 또는 아세안 TELMIN 및 TELSOM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의 ICT 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아세안 웹사이트: www.asean.org

Naver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한-아세안센터: <http://www.aseankorea.org/kor/>

<http://www.thebridgesmagazine.com/>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12),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시사점”.

Trade Brief. 2015. 12. 31. No.6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12), “2014년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SEAN (2015). ‘ASEAN ICT Masterplan 2015 Completion Report’, ASEAN.

_____ (2015). ‘ASEAN ICT Masterplan 2020’, ASEAN.